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36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12월 13일 (음력 11월 7일) 목요일

전남도, 노사민정 운용 전국 최우수 지자체 영예

전남도가 노사민정의 모범적인 운용으로 전국 최우수 지자체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전남도가 고용노동부 주관 2018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평가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11년 연속 최우수 지

체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룬 것으로 앞으로 깨지기 힘든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도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5개 분야(노사민정협의회 인프라 운영, 지역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지원사업 수행성과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인식확산)에 대해 서면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거쳐 평가 한 결과



남측으로 내려오는 북측 현장점검반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해 12일 오후 상호점검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북측 현장점검반이 우리측 점검반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현장점검반은 이날 남북 사범철수 GP를 연결하는 오솔길을 통해 이동했고 오전에 우리측이 북측 GP 철수현장을,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측 GP 철수현장을 각각 방문해 점검했다. 남북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된 GP를 상호 방문해 들여다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평가서 대상 수상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자체 평가 11년 연속 쾌거

광역지자체 중 대상을 수상한 것이다.

이로써 전라남도는 명실상부한 노사상생 화합 평화 지역으로서 기업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새로운 지역 이미지로 부각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김신남 경제에너지국장은 "민선7기 들어 전남도는 노사상생화합을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노동단체 경총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협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추진실적 평가는 지역단위에서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한 우수 지자체를 2008년부터 발굴 포상해 오고 있다.

김정환 기자

전남도 '인구, 희망찾기 프로젝트' 7개 사업 선정

전남도는 젊은 세대 유입 위한 '전남인구,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순천 '공유로', 곡성 '청춘작당', 보성 'BLUE VILLAGE' 등 7개 시군에서 제안한 사업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인구, 희망찾기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인구구조를 만들기 위해 '2040' 젊은 세대의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점 발굴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11월까지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진 공모에서는 청년 창업·창업지원, 귀농 귀촌 정착 지원, 청년문화예술 지원 등 16개 사업이 접수됐다.

전남도는 시군이 심사에 직접 참여하는 열린 심사를 통해 1차로 10개 사업을 선정

한 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7개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엔 사업당 2억 원 내외가 지원되며, 사업별 특성에 맞게 공간 조성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된다.

선정된 사업은 ▲순천시 '빈집을 활용한 청년 공유 공간 공유로' ▲광양시 '상상캠퍼스' ▲곡성군 '젊음을 디자인하라! 환장할 청춘작당' ▲고흥군 '귀향청년 100일 체험동지 조성' ▲보성군 '청년 BLUE VILLAGE 조성사업' ▲장흥군 '우리마을 청년마켓 양성사업' ▲무안군 '청년 귀농인의 집 조성'이다. 전남도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김정환 기자

광주시-시의회 조직재편안 갈등 일단락

전체 의원 간담회서 유감 표명

민선7기 두번째 조직재편안을 두고 빚어진 광주시와 시의회 사이의 갈등이 봉합됐다.

정종재 행정부시장이 직접 전체 의원에게 유감을 표명한 데 따른 것으로 정 부시장은 12일 오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 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조직재편안을 두고 혼신을 드려 유감"이라고 우회적으로 사과한 뒤 의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조직재편 책임 부서장인 김광휘 기획조정실장은 "여러모로 사과드린다"며 이해를 구했다.

시는 지난달 중복지구 폐지와 통폐합을

통해 정원을 기존 3638명에서 3664명으로 늘리고, 4실6국3본부62과이던 기구는 4실7국3본부67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재편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함께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최근 행정부시장의 명예퇴직 발언과 맞물려 논란이 됐던 지치행장국 선임 부서 문제와 관련, 당초 지난달 28일 전체 의원 설명회 때와 다른 개편안이 제출되면서 "신뢰에 문제가 있다"며 의회가 안전장정을 보류하면서 시와 의회 사이에 미묘한 갈등 기류가 형성됐다.

이에 추가 설명 등이 이어졌고, 부시장이 유감을 공식 표명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서은홍 기자



정적 제거?

이제명 경지사 부부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자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되는 것일까 수사결과를 내었다.

이에 따라 이 자사를 둘러싼 친형 강제입원 등 의혹의 실체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었지만, 부인 김 씨는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게 됐다.

검찰은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포 등 혐의를 받는 이 자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로써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유반 공소시효 만료일(3월)을 앞두고 이 자사 부부 사건은 종결됐다.

이 자사는 여전히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율중 중세가 있는 친형의 강제 입원을 위한 입원 시도만 했을 뿐 실제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사람은 형수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조인호 기자 · 자료사진=뉴스시스



완도 해양치유로 몸과 마음 힐링하세요!

청정한 기후환경과 최고 품질의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양치유산업 최적지입니다.

완도군에서는 2030년까지 1조원을 투입하여 해양헬스케어센터, 해양병원, 치유공원 등 공공시설과 해양리조트, 바이오기업 등의 민자시설이 복합된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양기후
호흡기질환, 면역강화

해수
재활운동, 혈액순환

갯벌
근골격계 이완, 피부질환

해조류
면역강화, 피부질환